

별빛 토끼와 졸린 별 친구

함께라서 더 따뜻한 밤





토끼 모리는 작은 방에서 침대에 조용히 누웠어요. 눈을 감고
꿈나라로 살며시 떠날 준비를 했지요. 창문 밖에서 별들이
반짝이며 모리를 환영했어요.



반짝이는 별들 중에 졸린 작은 별 하나가 스르르 내려와 모리의 곁에 아늑하게 앉았어요. "안녕, 나는 별이야,"라고 속삭였지요.



모리는 졸린 별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이 말라 보이는데, 뭐라도 마실래?" 별은 살짝 웃으며 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별이 물을 한 모금 마시자, 별빛이 더욱 환하게
빛났어요. 두 친구는 함께해서 더 빛났지요.



별은 "고마워, 모리야. 이제 슬슬 잘 준비를 해야겠어,"라고 속삭이며 사랑스런 반짝임을 남겼어요. 모리는 따스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리는 별과 함께 작은 자장가를 부르며 침대에
누웠어요. 마음이 포근하게 부풀어 올랐지요.



"잘 자라, 작은 별이," 모리가 속삭이자 별이 작은 반짝임을 남기며 가볍게 하늘로 날아갔어요.



모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반짝이는 밤,
별빛의 흔적 속에서 깊은 꿈나라로 갔지요.



끝

★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별이 남길 바라요.

별빛 토끼와 졸린 별 친구

글·그림 올레길

© 2026 올레길 · Storypia